

## 규슈지역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전개\*: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최민경\*\* · 양민호\*\*\*

### 【 목 차 】

I. 들어가며	IV. 후쿠오카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전개 : 해방 이후
II. 선행연구 검토	V. 나오며
III. 후쿠오카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 : 해방 이전	

### I. 들어가며

2018년 6월 말 현재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은 약 15,000명으로, 이 중 약 78%인 12,029명이 후쿠오카(福岡)에 거주한다.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東京)(43,470명)나 재일한인 최대 집주 지역을 포함하는 오사카(大阪)(84,366명)와 비교하면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sup>1)</sup> 그러나 후쿠오카는 재일한인을 탄생시킨 국제적인 인구 이동, 즉,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후쿠오카는 한반도와 일본을 이은 다양한 항로의 출발·도착지이자 경유지였던 시모노세키(下關)항과 인접하는데 그중에서도 물자가 아닌 사람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의 역할이 컸다. 부관연락선은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이어 운항하였는데, 강제동원에 의한 이동이 일어나기 전이자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자발적인' 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인 1910년부터 1935년까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건너간 승객의 총수는 6,320,987명에 이른다.<sup>2)</sup> 이 중에는 일본인과 반복적인 이용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관연락선을 통한 인구 이동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제1저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1) 法務省(2018), 『在留外国人統計』([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最終閲覧日:2019年8月6日))

2) 朝鮮總督府, 各年度版,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모노세키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온 한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향하였는데 그중 한 곳이 후쿠오카였다. 물론 게이힌(京浜)과 한신(阪神)과 같은 대규모 공업지대<sup>3)</sup>가 있는 도쿄, 오사카로의 유입에 비하면 적은 수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상위 5개 지역 중 하나였다. 후쿠오카의 경우, 도쿄, 오사카와 비교했을 때 시모노세키항과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가진 도시였다. 즉, 더 이상의 이동 경비를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후쿠오카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주 단계가 진행되어 친인척이나 지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처음 도착한 지역보다 좋은 기회를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 특히 이주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sup>4)</sup>이 취약하기 때문에 처음 도착한 지역에 그대로 체류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인의 일본 이주 초기 단계에서도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1920년대 후쿠오카에는 오사카나 도쿄보다 많은 수의 한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1920년에는 오사카를 제치고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며, 1925년이 되면 오사카보다는 적지만 도쿄보다는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후쿠오카에서 재일한인의 커뮤니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 전개되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해방 이후에 걸쳐 일어난 후쿠오카로의 재일한인 유입, 체류 과정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재일한인의 지역 커뮤니티에 주목한 기존의 국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전전과 전후로 나누어 후쿠오카의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 및 전개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정리하고 의의를 검토한 후, 한계와 추후 과제를 제시하겠다.

## II. 선행연구 검토<sup>5)</sup>

국내 재일한인 연구의 발전 속에서 1980년대 이후, 지역에 주목하여 이들의 삶의 모습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시작되었는데, 이는 재일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서

- 3) 일본의 4대 공업지대에 포함된다. 게이힌은 도쿄와 요코하마(横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며, 한신은 오사카와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 4) 사회적자본이라고도 한다. 기존의 물질자본, 인적자본과 달리 개인이 소유하거나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1990년대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연구가 있다. Coleman, James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Schuster.
- 5) 본 연구에서는 분량상 국내의 재일한인 연구만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재일한인 연구의 대부분도 본문에서 언급한 국내의 재일한인 연구의 한계점(=대상 지역 편중)을 공유하기 때문에 논의의 전개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인 연구성과의 세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지역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전 재일한인 연구의 대부분은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재일한인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법적 지위를 다져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연구성과들이 대부분이었다.<sup>6)</sup> 결과적으로 재일한인을 둘러싼 거시적인 구조에 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재일한인이라는 사회 집단이 가지는 다양성을 간과하고 이들을 ‘하나의 균질적인 덩어리’로 자리매김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 재일한인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 내부의 연령, 성별, 교육 정도에 따른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재일한인 연구에서도 이들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도 그중 하나였다.

한편, 이 시기 일본에서는 재일한인과의 공생을 위해 독자적인 움직임 보이는 지방 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후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사실상의 이민’인 재일한인의 존재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들을 지역 주민으로 끌어안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으며 지역 사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재일한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재일한인이 집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정부 차원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 시행되었고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재일한인이 주체가 되는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재일한인의 삶의 역동성이 더해져 갔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앞에서 언급한 재일한인 연구의 변화와 맞물리며 거주 지역에 따라 재일한인의 삶의 양상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의 답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 디아스포라 연구 전체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글로벌화의 진행과 더불어 디아스포라 개념은 재발견, 확장되었고, 관련 연구도 많이 늘어났다. 최근의 디아스포라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가 “자민족(국가)중심주의, 지나친 추상화, 그리고 체제유지의 경향이 강했다는 점”에 대하여 성찰하며, 디아스포라를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해방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sup>7)</sup> 바로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분석 단위가 등장한다. 이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국민국가로 경계 지워진 단위를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자 차별화”로, “지역에 주목함으로써 디아스포라 담론이 민족 중심의 본질주의적, 추상적, 이론적, 제도적 측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가 지닌 구체성, 역사성, 실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8)</sup> 그리고 물론 동북아의 대표적 디아스포라인 재일한인 관련 연구의 경향도 이러한 디아스포라 연구 전반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국내 재일한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크게 특정 지역의 재일한인 커뮤니티 자체를 살펴본 연구와 재일한인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움직임을 검토한 연구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우선, 특정 지역의 재일한인 커뮤니티 자체를 살펴본 연구는 다시 커뮤니티의 경제 활동과 기타 사회문화 활동을 다룬

6) 임영언·김태영(2011),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자원으로서 연구사 고찰: 1945년 이후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50호, p.366.

7) 이상봉(2010),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 『한일민족문제연구』18호, p.116.

8) 이상봉, 위의 글, p.119.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 해방 이전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드물며,<sup>9)</sup> 오사카 지역 재일한인의 협동조합이 결성,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제외하고는<sup>10)</sup> 해방 이후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연구는 해방 직후 재일한인의 암시장 형성과 기능, 그리고 발전 양상을 분석한 연구인데,<sup>11)</sup> 이는 재일한인 집주 지역의 탄생 및 발전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후자, 즉, 지역에 초점을 맞춰 재일한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살펴본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축제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오사카 원 코리아 페스티벌 등을 분석한 이들 연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일한인의 민족축제를 통해 이들의 민족 정체성 표출 방법의 특징 및 변화에 대하여 논한다.<sup>12)</sup> 그밖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한인의 식문화나 종교 생활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도 눈에 띈다.<sup>13)</sup> 다음으로 재일한인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움직임을 검토한 연구로는 가장 초기의 이시재의 연구<sup>14)</sup>를 시작으로 재일한인의 지방 정치 참가 유도과 실질적인 사회권 확보를 위한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제도 운용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sup>15)</sup>

이렇게 기존에 지역에 주목한 국내 재일한인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 연구에는 매우 큰 공통점이자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바로 도쿄와 가와사키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오사카 이외의 지역을 검토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와쿠

- 
- 9) 이는 해방 이전의 경우, 재일한인이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하층 노동자로서 자리매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강제동원에 의한 재일한인의 일본 유입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경제 활동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 10) 정혜경(2001), 「1930년대 초기 오사카 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 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1호, pp.71-112.
- 11) 이상봉(2011),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한국민족문화』41호, pp.231-261; 박미아(2016),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과 암시장: 1945~1950년 암시장 가쓰기야(担ぎ屋)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76호, pp.251-286; 박미아(2017), 「재일조선인과 해방 직후 암시장: 도쿄 우에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33호, pp.59-94; 박미아(2018),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암시장 활동: 오사카시(大阪市) 우메다(梅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34호, pp.125-160.
- 12) 박수경(2010), 「재일코리아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5호, pp.269-288; 유기준(2010), 「시텐노지왓소와 재일코리아 문화의 역할 연구」, 『일본문화학보』, 44호, pp.403-423; 황혜경(2010), 「재일코리아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6호, pp.471-492; 김현선(2011), 「재일 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오사카 '통일마당 이쿠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제1호, pp.1-30; 손미경(2011), 「오사카 원코리아 페스티벌: 통일운동에서 다문화공생의 장으로」, 『재외한인연구』, 23호, pp.309-348; 전진호(2018), 「원코리아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30호, pp.151-174.
- 13) 김인덕(2013), 「일제강점기 오사카 조선촌의 식문화」, 『동방학지』163호, pp.35-55; 이현철·조현미(2013),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공간으로서 교회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가와사키시 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7권제2호, pp.228-253.
- 14) 이시재(2002),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정책연구: <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철폐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제36권제6호, pp.7-26.
- 15) 이시재(2003), 「일본의 외국인 지방자치 참가문제의 연구: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의 성립 및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제1호, pp.21-44; 한승미(2010),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재일 한국/조선인에의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제43권제1호, pp.263-304; 이상봉(2017), 「일본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 2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민족문화』, 65호 pp.63-95.

니의 재일한인 여성의 역사를 다룬 양동숙의 연구는 예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특히 가와사키와 오사카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두 지역은 재일한인의 집주 지역이자 지방 정부의 선진적인 정책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집주 지역의 경우, 재일한인의 삶의 모습이 응축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연구자가 비교적 조사를 위해 접근하기 쉽다는 측면이 있다. 한편, 재일한인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움직임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더불어 비교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구가 가와사키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지역과 재일한인에 대하여 논해 온 사실은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 지역에 편중하는 경향은 지역에 주목한 재일한인 연구가 당초에 지향하던 바와 괴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일한인 연구에 있어서 지역이 등장한 이유는 이들의 삶이 가지는 다양성을 살펴보고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속의 재일한인을 검토하는 작업은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크게 퇴색시켜 버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주목한 재일한인 연구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에서의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지역은 후쿠오카이다. 왜 후쿠오카인가? 후쿠오카는 재일한인의 과거와 현재가 길항하고, 시간적 연속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후쿠오카는 한반도와 일본을 이은 항로의 출발·도착지이자 경유지였던 시모노세키항과 인접하며, 시모노세키항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이주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한인의 유입이 두드러졌던 곳이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도쿄나 오사카와 비교해서 작은 규모기는 하지만 일본 전국으로 봤을 때는 재일한인의 분포가 두드러지는 지역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한반도로의 귀환을 바라는 많은 조선인이 배를 타기 위해 후쿠오카 인근 항구로 몰려들었는데, 이 패전 직후 시점에 있어서 귀환과 체류가 착종하는 가운데 후쿠오카는 독자적인 재일한인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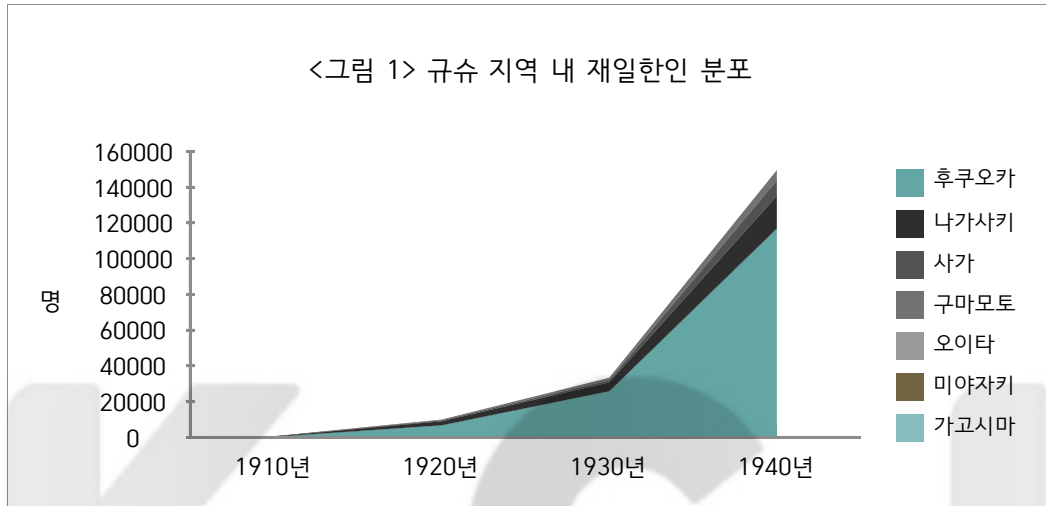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후쿠오카의 인구 이동과 관련된 역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재일한인 커뮤니티가 전전과 전후에 걸쳐 어떻게 형성, 전개됐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는 지역에 주목하는 재일한인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용을 심화하는 시도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Ⅲ. 후쿠오카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 해방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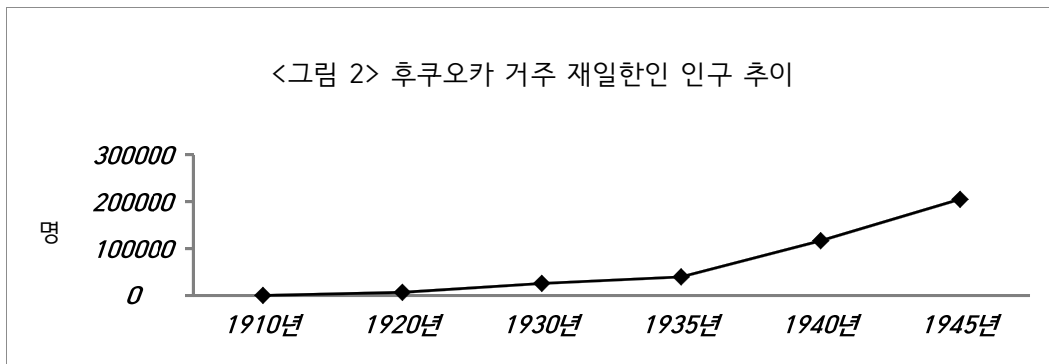
후쿠오카가 속한 규슈지역은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한인의 이동과 취업이 이루어졌다.<sup>17)</sup> 이후 1905년 부관연락선이 취항하면서 한인의 유입은 본격

16) 양동숙(2015), 『이와쿠니 재일조선인 여성의 역사』, 『동아시아문화연구』63호, pp.283-315.

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규슈지역의 재일한인 수는 1910년 839명에서 1920년 10,918명, 1930년 37,223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sup>18)</sup> 특히 규슈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관연락선이 도착하는 시모노세키항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동하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에 걸친 한인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규슈지역 내부에서 재일한인의 분포는 어떠하였을까?



<그림 1><sup>19)</sup> 처럼 규슈지역 재일한인의 지역적 분포는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재일한인 수 자체가 적었던 1910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60~70퍼센트 이상이 후쿠오카에 거주하며 그 뒤를 나가사키(長崎)가 이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크다.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1930년대 후반 이후 강제동원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늘어나지만, 전반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리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규슈지역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전개에 있어서 후쿠오카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7) 坂本悠一(1998), 『福岡県における朝鮮人移民社会の成立—戦間期の北九州工業地帯を中心として』, 『青丘学術論集』第13集, p.134.

18) 田村紀之(1982), 『内務省警保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 『経済と経済学』46号, pp.51-93.

19) 田村紀之, 上掲論文.

후쿠오카 거주 재일한인의 인구 추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림 2><sup>20)</sup>와 같다. 1910년 335명에 불과하던 후쿠오카의 재일한인은 이후 급증하여 1920년에는 6,798명, 1930년에는 25,838명에 이른다. 이후 1930년대 후반이 되면 강제동원의 영향으로 그 수는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 1945년에는 205,452명의 재일한인이 후쿠오카에 거주하게 된다.

이처럼 후쿠오카가 재일한인 유입의 중심 지역이 된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한인 노동자의 수요가 높은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한인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했던 산업은 광업과 공업이었다. 후쿠오카는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 산업화에 필수 불가결했던 석탄의 주요 산지로서 기능해 왔다. 후쿠오카현 북부에 있는 치쿠호(筑豊) 탄광이 대표적으로, 1950년대 후반 일본의 주요 소비 에너지가 급격하게 석유로 바뀌어 폐광에 이르는 시기까지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치쿠호 탄광은 1901년 관영 야하타(八幡) 제철소가 설립되면서 개발과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야하타 제철소를 중심으로 기타규슈 공업지대 또한 형성되어 제철업 나아가 시멘트 제조업 등 공업이 발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바로 이 부분에 한인 노동자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27년 시점의 후쿠오카 거주 재일한인의 상세한 직업 구성은 <표 1><sup>21)</sup>과 같다.

<표1> 1927년 후쿠오카 거주 재일한인의 직업 구성

직업	수 (명)	비율 (%)	직업	수 (명)	비율 (%)
광부	5,183	49.1	일용직 인부	1,767	16.7
짐꾼	891	8.4	토목 인부	840	7.9
채석 인부	476	4.5	농사 인부	392	3.7
제철소 직공	223	2.1	기와 직공	128	1.2
행상	138	1.3	점원	114	1.0
작부	87	0.8	기타	302	3.3
합계: 10,541					

위의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부가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직업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29년 오사카시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재일한인의 경우 공장 노동자가 대부분이며 특히 여성은 섬유, 남성은 유리·금속·고무 관련 제품 생산자가 많은 반면, 광업 종사자는 없다.<sup>22)</sup> 한편 후쿠오카 같은 경우, 제철소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공장 노동자는 매우 적으며 광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리고 짐꾼(나카시: 仲仕)<sup>23)</sup> 또한 생산된 석탄을 선박에 싣는 석탄 짐꾼(石炭仲仕)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광업 관련 직업 종사자의 비율

20) 田村紀之, 上掲論文.

21)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1929), 『管内在住朝鮮人労働事情』,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 pp.35-39.

22) 大阪市社会部(1929), 『本市に於ける朝鮮人の生活概況』, 大阪市.

23) 오키나카시(沖仲仕)라고도 한다. 항만 시설이 현대화되기 이전 배와 육지 사이의 화물 선적, 하역을 담당했던 노동자(=부두, 항만 노동자)를 가리키며, 현대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취급을 지니는 측면이 있다.

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후쿠오카 재일한인의 직업 분포는 이들의 거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 이미 야하타시를 중심으로 하는 기타규슈 공업지대와 가호군(嘉穂郡) 및 구라테군(鞍手郡) 등 치쿠호 탄광 일대에 재일한인의 거주가 두드러졌으며 후쿠오카 시내나 농촌 지대인 치쿠고 지역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sup>24)</sup>

이처럼 후쿠오카의 재일한인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 지역의 기간산업인 광업에 포섭되는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후반 강제동원이 시작되면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강제동원으로 이동해 온 재일한인의 경우, 관련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해 오히려 생활상이 밝혀진 부분이 많다. 하지만 강제동원 이전에 후쿠오카에 건너온 재일한인의 경우는 논의가 부족하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1929년 후쿠오카 지방 직업 소개 사무국에서 출판한 『관내 재주 조선인 노동 사정(管内在住朝鮮人勞働事情)』(이하, 『노동 사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도록 한다. 1928년 시점에서 후쿠오카 32개 탄광에 6,511명의 한인이 광부로서 고용되어 있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이 6,298명, 여성이 213명으로 직업 특성상 남성 인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후쿠오카 거주 재일한인 전체의 성별 구성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sup>25)</sup> 이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두드러지는 점으로 오사카 등 지역에서는 재일한인 여성이 방직 여공 등의 형태로 고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후쿠오카 재일한인의 노동 상의 특징은 강도가 세고 유동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서는 재일한인이 담당했던 작업은 대부분이 갱내 작업이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채탄으로 대표되는 갱내 작업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사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는데 위에서 소개한 『노동 사정』에 따르면 1928년 현재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는 재일한인의 약 86%가 갱내 작업에 투입되었다.<sup>26)</sup> 후자의 유동성은 근속 기간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만두고 이동하였다.<sup>27)</sup> 물론 이는 노동 강도와도 연관된다고 보이며, 탄광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후쿠오카 재일한인 전반의 노동 불안정성은 매우 높았다. 한편, 이들의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주었을 임금을 살펴보면 탄광 대부분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광산마다 차이가 커, 다양하지만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후쿠오카 광산 감독국에서 1928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광부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갱내 작업 기준으로 36.23엔에서 41.73엔까지의 범위에서 월급을 받았다.<sup>28)</sup> 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일본 도시 거주 노동자 세대의 평균 월수입은 80~110엔 정도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과 비교해서도 적었다. 예를 들어, 1928년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평균 월수입인 63.71엔이었는데,<sup>29)</sup> 이로부터 후쿠오카 재일한인의 삶이 전체 재일한인 내부에서도 상당히 궁핍했음을 알 수 있다.

24) 坂本悠一, 前掲論文, p.137.

25)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 前掲書, pp.83-92.

26)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 上掲書, pp.83-92.

27)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 上掲書, pp.110-114.

28)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 上掲書, pp.105-110.

29) 東京府学務部社会課(1929), 『在京朝鮮人労働者の現状』, 東京府, p.108.



#### IV. 후쿠오카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전개: 해방 이후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당시 후쿠오카 지역에는 약 20만 명의 재일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 전체로는 약 200만 명의 재일한인이 있었다고 하니 10분의 1정도의 규모로 도쿄나 오사카 등 지역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수는 아니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후쿠오카의 경우,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의 이동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재일한인이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에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재일한인 인구 증가는 소강상태였다. 다만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강제동원에 의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다시금 거주하는 재일한인 수가 일정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패전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후쿠오카의 이동성을 극단적으로 높였으며 그 중심에는 재일한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재일한인의 한반도 귀환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패전 직후인 1945년 9월 1일 일본 정부는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들의 긴급 조치에 관한 건(朝鮮人集團移入勞務者等ノ緊急措置ニ關スル件)」이라는 통달(通達 notification)을 내린다. 이 통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0)</sup>

(1) 부관연락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운행할 예정에 있다. 조선인 집단 이입 노무자는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계획 수송한다. 석탄산 등의 숙련노동자로서 [일본] 체류 희망자는 체류를 허용할 것. 단, 사업주가 강제로 권장하지 않을 것

(중략)

(4)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일반 조선인의 한반도 귀환에 관해서는 귀환 가능한 시기가 되면 상세한 지시가 내려올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현재 거주지에서 평정하게 업무에 종사하며 대기하도록 지도할 것.

(후략)

이 통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으로 건너온 재일한인부터 한반도 귀환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그 이전 시기 일본에 건너와 생활 기반을 닦아 정착한 재일한인의 경우 당분간 ‘동요 없이’ 현상을 유지할 것을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바람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대기’ 대상이라고 분류된 ‘일반 조선인’ 중에도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앞의 통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조선인을 실어 날랐던 부관연락선이 이번에는 거꾸로 일본에서 한반도로 조선인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선박 운항 재개 소식은 고향 귀환의 기대감을 높일 뿐이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시모노세키가 재일한인 귀환의 중심이 되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모노세키에 버금가게 많은 재일한인이 몰려든 항구가 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하카타(博多)항이다.

30) 厚生省勤務局長・厚生省健民局長・内務省管理局長(1945) 「朝鮮人集團移入勞務者等ノ緊急措置ニ關スル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pp.2-8.

하카타항은 패전 직후부터 한반도에서 일본인 인양자(引揚者)<sup>31)</sup>를 태운 화물선이 도착했던 곳으로 이 화물선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 재일한인의 일부를 태우기도 하였다. 즉, 앞에서 언급한 통달을 통해 일본 정부의 문제 인식이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하카타항은 ‘비공식적’으로 조선인 귀환의 창구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하카타항은 1945년 9월 이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조선인 귀환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시모노세키항과 더불어 조선인 귀환의 중심지가 된다. 예를 들어, 1945년 9월 12일에는 철도총국 업무 국장의 이름으로 『관부 및 박부 항로 경유 여객 운송(關釜並ニ博釜航路經由旅客輸送ノ件)』이라는 통달이 내려져 시모노세키와 부산 그리고 하카타와 부산 사이의 연락선<sup>32)</sup>은 조선인의 ‘계획 수송’을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된다.<sup>33)</sup> 특히 시모노세키 측이 규슈지역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경우 하카타항에서 귀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하카타항은 귀환을 원하는 규슈지역 재일한인의 집결지가 된다.<sup>34)</sup>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반 조선인’의 귀환은 제외하고 ‘계획 수송’과 관련된 지침만을 내놓았고 그마저도 운행 선박의 한계 상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카타항에는 귀환을 희망하는 조선인이 적체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기’ 대상이라고 여겨졌던 ‘일반 조선인’ 중에도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계획 수송’ 대상들과 함께 한반도로 돌아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하카타항으로 몰려들었으며, 그 결과 1945년 12월이 되면 약 2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하카타항에 적체된다.<sup>35)</sup>

그렇다면 하카타항에 몰려든 규슈지역 재일한인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1945년 8월 말에는 이미 하카타항 근처의 공원에서 귀환을 희망하는 조선인이 노숙하고 있으며, 이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기록이 있다.<sup>36)</sup> 즉, 이들은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며 한반도에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카타항에 적체되어 있던 재일한인이 자신의 궁핍을 극복하려는 활동으로써 암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인 인양자와 달리 식량과 의류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던 재일한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기다리며 돼지를 키우거나 술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재일한인에 의한 암시장이 형성되었던 지역은 하카타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카사(御笠)강 하류 인근으로 1946년 12월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으로부터의 집단 계획 수송 종료 선언하기까지 크게 번성했다. 물론 암시장 주변에는 판잣집이 다수 세워져 재일한인의 생활 공간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런데 계획 수송이 끝난 후,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차례라고 생각했던 재일한인은 자의 반 타의 반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부 지역의 콜레라 유행 등으로

31) 일본어로는 ‘히키아게샤’라고 읽는다. 영어로 하자면 repatriates에 해당하는 존재로,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세력권에 거주하던 일본인 중 일본 본토로 철수, 귀환한 사람들을 말한다.

32) 부박연락선(釜博連絡船)은 1943년부터 시모노세키항의 과밀을 해결하고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항이 시작되었다.

33) 鉄道総局業務局長(1945), 『関釜並ニ博釜航路經由旅客輸送ノ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pp.12-14.

34) 出水薫(1993), 『敗戦後の博多港における朝鮮人の帰国について: 博多引揚援護局『局史』を中心とした検討』, 『法政研究』60(1), p.81.

35) 出水薫, 上掲論文, p.81.

36) 出水薫, 上掲論文, p.77.

인해 귀환 연기를 선택하는 재일한인이 많아졌고, 실제 이들을 실어 나를 선박의 운항이 자주 중단되기도 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일본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한정하는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렇게 귀환을 ‘미루는’ 과정에서 판잣집 임시 거처는 정착지가 되어 갔다. 문제는 고향에 ‘언젠가’ 돌아가기 위해 ‘임시로’ 지은 판잣집은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불법 건축물이었다는 것이다. 1940년대 후반에는 이미 재일한인이 모여 살던 지역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들의 강제 퇴거 문제가 물 위로 떠올랐으며, 특히 국도 3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도록 계획되면서 상황은 크게 진전되는데<sup>37)</sup> 1956년 후쿠오카현 의회 의장이 중앙 정부의 장관들을 대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시를 관통하여 하카다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카사강의 하류 양안 및 하카타역 앞 일대에는 조선인 가옥을 중심으로 4백여 채의 불량 건축물이 육지 및 수상에 혼잡스럽게 집단 부락을 이루고 이것이 국도 3호선 및 하카타항 쪽의 후쿠오카시 입구를 막고 있으며 시의 미관, 교통, 환경위생, 교육 등 각 방면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중략) 이 문제는 한일 양국에 관련 되는 것으로 책임은 물론 국가에 있으며, 거주자의 퇴거 후 이전 장소의 건축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자금 원조를 하는 것을 강하게 요망합니다.<sup>38)</sup>

즉, 한 가구당 구성원 수가 많고 영세 판매업자(주로 음식), 일용직, 무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미카사강 일대 조선인 거주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후쿠오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이는 각종 도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었으며, 특히, 치안,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컸다.

결론적으로 1959년<sup>39)</sup> 후쿠오카현과 시가 국가의 보조를 받고 스스로도 비용을 분담하여 인근 지역에 ‘단지(団地)<sup>40)</sup>를 세우고 미카사강 일대에 거주하던 재일한인을 이주시키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1962년 실행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날로 이어지는 후쿠오카 재일한인 커뮤니티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재일한인이 가장 먼저 이주하게 된 곳은 하마마쓰(浜松) 단지이며 이후 인근의 다카마쓰(高松) 단지에도 다수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단지는 모두 미카사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후쿠오카시 히가시구(東區)에 속한다. 하마마쓰 단지에 거주하는 재일한인 1세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지’로 옮긴 후에도 암시장에서 했던 것과 같이 행상에 가까운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41)</sup>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해방 이후 후쿠오카의 재일한인 커뮤니티가 전개되는 과정이

37) 이후 재일한인 ‘단지’로의 이주가 완료되기까지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주택 조합을 만들어 행정과의 교섭에 나서게 된다. (稲月正(2006), 『福岡市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集住地の形成』, 『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の比較都市社会学(平成14年度～17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 研究代表者: 西村雄郎)』, p.367.)

38) 福岡市(1984), 『福岡市史 昭和編資料集・後編』, 福岡市, p.332-333.

39) 당시 후쿠오카현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의 수는 33,661명 이었다.

40) 고도경제성장기 도시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심각해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외 지역에 만들어진 집단 주거 지구를 말한다. 당시에는 서구적, 선진적인 설비를 갖춘 주거로써 인기가 많았으나, 고도경제성장기가 끝나면서 쇠퇴, 인구감소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는 고령화 문제 등이 심각하다.

41) 柳井美枝(2006), 『浜松団地のコミュニティ状況』, 『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の比較都市社会学(平成

지녔던 특징은 한반도로의 귀환과 일본에서의 체류가 착종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자생적 집주 지역이 이후 도시 문제가 되면서 행정에 의해 재일한인 커뮤니티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오사카나 가와사키 등 잘 알려진 지역과 달리 후쿠오카의 경우는 ‘단지’라는 특수한 공간에 매우 밀도가 높은 형태로 재일한인이 모여 살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앞에서 언급한 하마마쓰 단지에 거주하는 재일한인 1세의 인터뷰 조사 전반을 살펴보면 ‘단지’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이 ‘단지’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는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택시의 승차 거부 대상 지역이었다는 일화가 있는 등 외부에서는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빈민가, 즉, ‘갯토(Ghetto)’에 가깝게 인식했다.<sup>42)</sup> 하지만 외부의 차별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에서는 재일한인 고유의 식문화, 관습 등이 지켜졌으며 유대 관계 또한 강하게 유지되었다. 그곳은 “1세에게 조선 그 자체였으며 가장 편안한 장소”였던 것이다.<sup>43)</sup>

#### IV. 나오며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 구체적으로는 후쿠오카에 주목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재일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지역에 주목하는 재일한인 연구는 모국과 정주국을 분석 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서는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일한인의 집주 지역, 그 중에서도 오사카나 가와사키 등, 특정 지역만을 고찰 대상으로 삼았다는 또 다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으나 재일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후쿠오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후쿠오카는 부관연락선의 출발·도착지인 시모노세키와 인접한 대도시로서 재일한인의 일본 유입 초기 단계부터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의 터전이 되었다. 후쿠오카의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경우, 이 지역 기간산업이었던 광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생활 세계가 형성, 전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탄광 지역 중심의 거주, 남성 중심의 인구 구성과 열악한 경제 사정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한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후쿠오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특징적인 커뮤니티 형성, 전개 과정을 거친다. 대한해협을 잇는 교통망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복구되면서 이 지역은 한반도로의 귀환과 일본에서의 체류가 착종 하는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항구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하류에 자생적인 집주 지역을 형성하는데, 이후 이 지역은 후쿠오카의 도시 문제로 여겨지면서 재일한인은 ‘단지’라는 특수한 공간에 새롭게 모여 살게 된다.

이와 같은 후쿠오카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특징적인 형성 및 전개 과정은 이 지역이 근현대

14年度~17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 研究代表者: 西村雄郎』, p.398.

42) 柳井美枝(2006), 上掲論文, p.400.

43) 柳井美枝(2006), 上掲論文, p.402.

에 걸쳐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교통망의 결절 지점이자 인구 이동의 중심으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지역과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후쿠오카 지역의 재일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재일한인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용을 심화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오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일한인의 노동(탄광, 부두·항만 노동)의 실태, 해방 이후 모국과의 네트워크,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와의 관계, 언어문화 생활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인덕(2013), 「일제강점기 오사카 조선촌의 식문화」, 『동방학지』163호, pp.35-55
- 김현선(2011), 「재일 밀집지역과 축제, 아이덴티티: 오사카 '통일마당 이쿠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제1호, pp.1-30
- 박미아(2017), 「재일조선인과 해방 직후 암시장: 도쿄 우에노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33호, pp.59-94
- 박미아(2018),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암시장 활동: 오사카시(大阪市) 우메다(梅田)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34호, pp.125-160.
- 박수경(2010), 「재일코리아축제와 마당극의 의의: 生野民族文化祭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5호, pp.269-288
- 손미경(2011), 「오사카 원코리아 페스티벌: 통일운동에서 다문화공생의 장으로」, 『재외한인연구』, 23호, pp.309-34
- 양동숙(2015), 「이와쿠니 재일조선인 여성의 역사」, 『동아시아문화연구』63호, pp.283-315.
- 유기준(2010), 「시텐노지왓소와 재일코리아 문화의 역할 연구」, 『일본문화학보』, 44호, pp.403-423
- 이상봉(2010),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아를 보는 새로운 시각」, 『한일민족문제연구』18호, pp.107-146.
- 이상봉(2011),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한국민족문화』41호, pp.231-261; 박미아(2016),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과 암시장: 1945~1950년 암시장 가쓰기야(担ぎ屋)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76호, pp.251-286
- 이상봉(2017), 「일본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 20년의 성과와 한계」, 『한국민족문화』, 65호 pp.63-95.
- 이시재(2002), 「일본 가와사키(川崎)시의 '내부국제화'정책연구: <공무원임용자격에 있어서 국적조항>철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36권제6호, pp.7-26.
- 이시재(2003), 「일본의 외국인 지방자치 참가문제의 연구: 가와사키시의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의 성립 및 운영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제1호, pp.21-44
- 이현철·조현미(2013),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공간으로서 교회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가와사키시 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7권제2호, pp.228-253.
- 임영연·김태영(2011), 「재일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화자원으로서 연구사 고찰: 1945년 이후 재일코리아 관련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50호, pp.353-368.
- 전진호(2018), 「원코리아 운동과 한인 디아스포라」, 『일본연구』, 30호, pp.151-174.

- 정혜경(2001), 『1930년대 초기 오사카 지역 협동조합과 조선인 운동』, 『한일민족문제연구』1호, pp.71-112.
- 한승미(2010), 『국제화 시대의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이민족시민(ethnic citizen)”: 동경도 정부의 “다문화주의” 실험과 제일 한국/조선인에의 합의』, 『한국문화인류학』, 제43권제1호, pp.263-304
- 황혜경(2010), 『제일코리아에 있어서 민족축제 의미와 호스트사회와의 관계: 오사카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46호, pp.471-492
- 出水薫(1993), 『敗戦後の博多港における朝鮮人の歸國について: 博多引揚援護局『局史』を中心とした検討』, 『法政研究』60(1), pp.71-101.
- 稻月正(2006), 『福岡市における在日韓国・朝鮮人集住地の形成』, 『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の比較都市社會學(平成14年度~17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 研究代表者: 西村雄郎)』, pp.361-375.
- 大阪市社會部(1929), 『本市に於ける朝鮮人の生活概況』, 大阪市.
- 厚生省勤勞局長・厚生省健民局長・內務省管理局長(1945) 『朝鮮人集團移入勞務者等ノ緊急措置ニ關スル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藏『內鮮關係通牒書類編冊』.
- 坂本悠一(1998), 『福岡縣における朝鮮人移民社會の成立—戰間期の北九州工業地帯を中心として』, 『青丘學術論集』第13集, pp.133-250.
- 田村紀之(1982), 『內務省警保局調査による朝鮮人人口』, 『經濟と經濟學』46号, pp.51-93.
- 朝鮮總督府、各年度版、『朝鮮總督府統計年報』.
- 鐵道總局業務局長(1945), 『關釜並ニ博釜航路經由旅客輸送ノ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藏『內鮮關係通牒書類編冊』.
- 東京府學務部社會課(1929), 『在京朝鮮人勞働者の現狀』, 東京府.
- 福岡市(1984), 『福岡市史 昭和編資料集・後編』, 福岡市.
-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1929), 『管内在任朝鮮人勞働事情』,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
- 法務省(2018), 『在留外國人統計』([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http://www.moj.go.jp/housei/toukei/toukei_ichiran_touroku.html) (最終閱覽日:2019年8月6日))
- 柳井美枝(2006), 『浜松団地のコミュニティ狀況』, 『エスニック・コミュニティの比較都市社會學(平成14年度~17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 研究代表者: 西村雄郎)』, pp.396-406.
- Coleman, James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Schuster.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규슈, 후쿠오카, 커뮤니티, Koreans in Japan, Diaspora, Kyushu, Fukuoka, Community
<p><b>Formation and Development of Zainichi(Koreans in Japan) Community in Kyushu Area: Focusing on Fukuoka</b></p> <p>Choi, Min-Kyung · Yang, Min-Ho</p> <p>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exploratory attempt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life of Zainichi(Koreans in Japan) beyond the framework of modern nation-states by paying attention to a new region, specifically Fukuoka in Kyushu. Researches on Zainichi focused on the region emerged with the recognition of limitations that their detailed lives could not be understand if we just analyzed the motherland and the host country. However, there is another limitation that only certain areas, including Osaka and Kawasaki, have been studied so far.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area of Fukuoka, which was previously unnoticed, bu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history of Zainichi, and looked at how their communities have been formed and developed.</p> <p>As a large city adjacent to Shimonoseki where was the starting and arrival place of the Bugwan Liner, Fukuoka provided jobs and became a place of life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influx of the Zainichi into Japan. In the modern times Fukuoka's Zainichi community largely depended on the mining, which is the local backbone industry. Meanwhile, after Japan's defeat in World War II, Fukuoka went through a process of forming and developing a characteristic community in another sense. As the transportation network linking the Korea Strait was restored around Fukuoka, the region entangled the return to the Korean Peninsula and stays in Japan. As a result, Zainichi formed a self-sustaining residential area downstream of the river that flows into the port. Afterward this area became a city problem in Fukuoka and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problem Zainichi began to live in a special space called the 'Danchi' and formed their community.</p> <p>Throughout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Fukuoka served as the nodule point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and as the center of population movement. And these characteristics ar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s, and continuing to study the Zainichi community in Fukuoka area in the future is significant in expanding and deepening the content of Zainichi study.</p>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최민경 · 양민호      (한자): 崔璿耿 · 梁敏鎬 (영문): Choi, Min-Kyung · Yang, Min-Ho 국문제목: 규슈지역 재일한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전개: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영문제목: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Zainichi(Koreans in Japan) Community in Kyushu Area: Focusing on Fukuoka

	소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minminchoi@pknu.ac.kr · minhojinsei@gmail.com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19. 08. 14. 심사일 : 2019. 08. 24. 심사완료일 : 2019. 08. 30.

K C I